

# 제주 전력구입단가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싸

### 2016년 대비 60% 급등... 신재생·LNG 확대 결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 지적 "속도 조절 필요하다"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 확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력거래소가 제주지역 발전원으로부터 구입한 전력구입 단가는 2016년 대비 60% 이상 급등했다. 이는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발전원 별로는 중유발전소가 895GW를 생산, 2467억원을 정산받아 kWh당 275.5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LNG발전소가 300GW 생산, 689억원을 정산받아 kWh당 229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에너지는 1711GW 생산, 3528억원 정산으로

지난 2016년 131원, 2017년 162원, 2018년 193원에서 2019년 211원으로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6년 대비 60% 이상 급등했다. 이는 육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발전원 별로는 중유발전소가 895GW를 생산, 2467억원을 정산받아 kWh당 275.5원으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LNG발전소가 300GW 생산, 689억원을 정산받아 kWh당 229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에너지는 1711GW 생산, 3528억원 정산으로

kWh당 206.1원,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kWh당 149.9원, 144.3원을 정산받았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전력 구입 단가가 비싼 것은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실제 제주도의 전력구입량은 25% 증가한 반면 구입비용은 100% 이상 급증했다. 2019년 기준 발전량은 3724GW로 2016년 2935GW 대비 약 27%가량 증가했지만 구입 금액은 2016년 3862억원에서 2019년 7895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1원도 이미 비싸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도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조금 성격의 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한다. 2019년 기준 제주지역 REC 발급량은 187만 개 수준이며 현재 전력거래소 시세는 4만5000원으로 이 비용이 추가되면 구입단가는 더 올라간다. 이와 관련, 한무경 의원은 "값싼 발전원을 폐지하면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번 제주도 사례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탈원전 및 탈석탄, 신재생 확대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덜어준다

### 도, 29일까지 지원 신청 신용회복 사업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까지 2020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재(후)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이며, 2020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를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통으로는 대학 재학(수료·졸업)증명서, 도외 소재 고등 학교 졸업생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생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다. 도는 접수 마감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대출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

환으로 신용유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민선 7기 원희룡 지사의 청년 공약사업인 '청년미래드림(Dream)' 사업의 일환으로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해 취업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청년들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자로 등록된 자로,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만19~39세)이다.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원리금의 5%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학자금 대출이자와 동일하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총 1108명에게 약 1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 '심(心)심,한 랜선 공모전' 23일까지 온라인 참가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청년의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심(心)심,한 랜선 공모전'에 참가할 작품을 오는 23일까지 공모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20 제주청년의 날'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속 삶에 대한 생각을 청년들이 함께 공유하며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년 그림 랜선 공모전과 청년 웹툰이 프로젝트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도내 청년(만19~39세)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청년 그림 랜선 공모전은 제주청년의 날 행사 슬로건인 '심(心)심,한(마음에 심)'을 주제로 청년들의 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이라면 장르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네이버 양식(<http://naver.me/xCf7hXGn>)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장 단상 낮추고, 비밀 차단 칸막이도 제주도의회는 16일 개최한 임시회 본회의장의 의장 단상을 중전보다 낮추는 한편 모든 의석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밀 차단용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고, 본회의 참석인원을 90명에서 60명으로 줄여 진행했다. 연합뉴스

# "식량·기후위기 긴급 대응 촉구"

### 제주도 농민단체 연합 성명서 농민헌법·공공수급제 등 요구

제주 농민단체들이 식량위기와 기후위기의 긴급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 농민단체 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태풍과 자연재해에도 농업이 지속가능하도록 국가 책임 강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매년 반복되는 태풍으로 인한 제주지역 농업은 폐자위

기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곡물자급률이 2018년 기준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 수입국인 한국 사회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현재 진행 중인 태풍과 기후위기에 본질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스스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국가의 역할은 식량자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농업을 만들 어갈 전망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먹거리만큼은 안전하게 제공하겠다는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면서 "하

지만 현재 문재인정부의 모습은 분명하게 그렇지 못하다. 3차례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추경에서 농업은 배려받지 못했고 160조를 투입해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구조로 변화시키겠다는 한국판 뉴딜에서도 농업은 배제된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헌법 제정,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면적 개정, 곡물자급률 설정 및 이행계획 마련, 김치자급률을 법제화, 주요 농산물 50% 이상을 공적영역에서 유통실현하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제정, 비농민 소유 농지 국가 매입 확대 및 국가 관리,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태윤기자

#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 이달 중 선정... 4억여원 지원

제주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2차 기능보강 사업에 4억39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제주도 소재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증·개축비, 개·보수비, 장비비로 곳당 증·개축비 3000만원, 개·보수비 2000만원, 장비비는 500만원으로 1회계연도에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단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내 기능보강사업비를 500만원 이상 지원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8월 12~26일 기능보강 지원 공모를 통해 어린이집 37곳의 신청을 받아 현장확인을 마쳤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9월중 사업 대상을 확정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올 상반기 1차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어린이집 46곳에 4억9400만원을 지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 육외광고물안전관리단 운영 안전사고 대비 등 역할 특목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육외광고물 관련 사고예방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육외광고물안전관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육외광고물안전관리단은 2014년부터 (사)제주특별자치도육외광고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도내 동·서·남부총괄팀과 현장관리소 등 민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 비상체제로 가동 중이다. 관리단은 재난재해 발생 시 육외

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해 위험 광고물에 대한 사전 철거 및 보수는 물론 약천후 시에도 긴급 출동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관리단은 지난 8월 제9호 태풍 '바비'와 지난 9월 제10호 태풍 '마이스'의 북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노후 육외광고물을 정비했다. 모두 41건의 태풍 피해 육외광고물 등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도내 계시대의 현수막과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입간판 등을 철거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되살리는데 일조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 그랜드보청기

### 추석한기위1+1개티드림행사!

\*건강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 제품군1 - 70만원 이하 (40개 제품)
- 제품군2 - 70만원 초과 ~ 90만원 (105개 제품)
- 제품군3 - 90만원 초과 ~ 111만원 (125개 제품)
- 제품군4 - 111만원 초과 (37개 제품)

※ 제품군에 속하는 보청기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샵출들 혼자 전화 주셔서! 기다려주세요!

###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 세계최초 인공지능 총전식 귓속형 보청기

430만 → 150만! 860만 → 270만!

◁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

비총전식 보청기 60만원대부터 정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라 사거리 동쪽 100m 행복방직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 감귤 신제품 분양

###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앵무목, 천혜향, 왕금향, 윈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시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식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 자원종묘

010-2691-1883

## 감귤묘목

###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독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은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거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집니다.

·카라향 1, 4년생	·궁천변이 1, 2년생
·유라실생 2,3,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굴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왕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회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제품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